

큰스님 수행한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40여년전 화정스님의 백양사 강원시절 사진. 앞줄 오른쪽 첫번째는 현재 나주 종림사 주지인 지항스님이고 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화정스님이다. 세번째는 前 백양사 주지 학능스님, 다섯번째는 입적한 태허스님이다.

불사를 여법히 회향하고 이 마음 한 조각 잘 닦아 부처님 모시는 은혜를 갚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불교의 잘못된 부분들을 과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쁜 아니라 많은 스님들이 마음 속으로는 나보다 더 예리하게 병폐를 지적하고 혹독한 처방전을 내릴 것입니다.

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생산의 의미는 무척이나 넓을 것입니다. 복지사업도 생산불교이고 교육불교도 생산불교입니다. 사찰소유의 농지를 농부들에게 도지를 것이 아니라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백장정규를 실천하는 수행체험 프로그램의 실습장으로 만들면 승가와 재가가 함께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를 향해 뭔가를 생산해 내는 불교가 되지 않으면 사회에서 도태되고 고립적인 교리만을 영무세처럼 외위대는 불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풍족하면 잡념과 탐욕 더 생겨요 '나는 마음이 가난하다' 생각하며 마음공부에 시간과 노력 투자해야

승을 부리는 법입니다. 종단분규니 두지 싸움이니 문중이니 파벌이니 하는 말들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도 생산불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엄청난 변화의 바람결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간의 종교는 인간의 고난과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기쁨과 희망으로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믿음만이 강요되는 종교는 이제 시선을 덜 받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요즘같은 콘 사이시식 교육이 그걸 감당해 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 개혁의 난제를 풀기위한 노력이 대단한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인간교육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과와 법칙에 대한 믿음만 심어주어도 윤리 교육을 다 마치는 겁니다. 인과를 믿고 그 어김없는 법칙을 두려워 한다면 정치판에 청문회가 있을 수 없고 경제인이 울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각종 범죄도 결국 인과와 엄연한 법칙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교육의 첫 걸음은 인과를 알게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법은 인과와 법칙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조현춘 (경북대 심리학과 교수)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나는 여러가지 신비한 체험을 했다. 내안으로 불어오는 법풍(法風)이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고, 나는 계속 꾸준히 경전을 독송해 나갔다. 그러면서 차츰 한문으로 되거나 고어로 풀이된 <금강경>을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읽을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나는 현대의 한글로 풀이된 <금강경>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런 스님의 자상한 가르침 덕분에 지난해 <한글세대를 위한 독송용 금강경>을 출간했다. 또 <금강경> 외에 다른 몇가지의 경전도 번역하기 시작했다. 나는 동양과 서양을 대립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동양의 정신문화가 없는 서양문명은 공허하고, 서양 문명이 없는 동양문화는 산만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동양 사람들은 물론 서양의 많은 현인들도 정신문화는 동양에 있다고 보아왔다.

'초등학생도 경전독송 가능하게' 화두삼아 금강경등 한글화 노력

트침을 주셨다. 내것을 보시더니 "그럼네요. 이렇게 번역하니깐 훨씬 좋습디다. 잘 배워서 꼭꼭 나네요" 하면서 너무 좋아하셨다. 처음에는 그저 격려 정도로 생각했다. 도가 높으신 어른이네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러나 스님과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약이 올랐다. 그래서 일부러 학생을 나무라듯 스님의 번역에 대해 흠을 잡았다. 불순한 나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3시간 40분 동안 한번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스님을 보면서 나는 완전히 기가 죽어 버렸다. '이 어른이 진짜 사람인가?' 하는 놀라움 이었다.

아니다. 수지독송위타인설하는 경이다. 반복해서 읽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종교에 관계없이 초등학교에서부터 <금강경>을 독송하도록 하고, 모든 교육자들은 반드시 반복적으로 독송



자기행동 책임지지 않으니 인륜 무너져 한국불교 3대병 못고치면 속화 못면해

는데 요즘 생각해 보면 참으로 옳은 선견(先見)이요. 소위, 기록불교의 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쌍뿔박과 돈공을 불단에 올리고 막연히 소망을 기원하는 불교에서 수행정진과 교리적인 지식의 충족 또는 그에 대한 체험으로 불교를 숭상하는 지성불교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불교라고 해서 공짜 신도들만 생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승단이 신도들의 날카로운 지성과 열정을 실망시키거나 그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굳이 절에 시주할 마음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불교는 뭘 갖다 바치고 빌기만 하는 종교가 아닌 절 할 말 할 때 할 말 할 때 생산불교가 필요합니다. 옛날처럼 농사짓는 것만이 생산불교가 아니

인대 김용사에 나의 은사이신 서용스님과 성철스님 서암스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참으로 서용 스님의 선사의 공도 그 자체였습니다. 겸박한 생활과 철저한 수행력은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는데 뭘 말로써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상들이 묵묵히 화두삼매에 드는 것으로 모든 걸 다 가르치시는 그런 경지였지요.

문에 무너지고 있으며 인간성은 어떻게 회복하자는 겁니까. 아니, 인간성이란 걸 뭐든 유추해 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을 얻는 길이 바로 참선입니다. 공산주의는 '혁명'로 당하고 민주주의는 '방종'으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요즘은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생활환경의 개인이나 그렇지 못합니다. 바로 스스로를 책임지지 않는 데서 인륜은 무너지고 인간성은 사라져 갑니다. 개인을 통제하고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이는 어떤 훌륭한 제도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를 통제하는 기능은 법질서로 충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Advertisement for '한얼휴텍' (Hanul Human & Technology) featuring a brain diagram and text about brain health products.

Advertisement for '세존도 소원성취기도 및 방생법회 유람선취항' (Sejondong Sowanseongchwigido and Bangsaengbeop-hui Yuramsen-chuehang) with a photo of a boat on water.

Large advertisement for '99학년도 대원불교대학' (99th Academic Year Daewon Buddhist University) including a table of courses and admission information.